

임실군, 꼼꼼·세심 교육행정

임실교육지원청과 공동주관... 교육정책 변화 따라 설명회 개최

임실군이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학입시 전략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갖고, 꼼꼼하고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쳤다.

군은 임실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27일 봉황인재학당에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대학입시 전략의 대응 방안과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인재전형 등 전형별 입학제도에 대해 임실지역 학생 맞춤형으로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 공동주관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 △수능 변화에 따른 성적 관리법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전략

및 학습법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요령 △의대 정원 증원 및 전형별 입학제도 등으로, 흥진중의 중앙에듀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이 진행됐다.

군은 교육설명회에 앞서, 임실봉황인재학당에 재학 중인 중학생 150명 및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및 대면 컨설팅을 사전에 실시,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이해를 높였다.

개인별 컨설팅은 성격, 흥미, 능력, 영역별 선호도 등 진로 탐색 검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1:1 대면 컨설팅을 실시, 고입 전형 정보 제공 및 대입 준비 역량을 강화해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진로와 연계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크게 호평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은 "임실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봉황인재학당은 그동안 대도시 못지않은 수준 높은 강사진 구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가 원하는 인재 육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여러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사진은 순창에서 펼쳐지는 소프트테니스 대회.

순창군, 소프트테니스 대회 유치

지역경제 효자 종목 자리매김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여러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매년 15개 이상의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30개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35,000여 명이 순창을 방문하여 지역에서의 소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숙박업소, 음식점, 편의점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이어나가기 위해 군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장에서 '2024 소프트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최종 선발전은 대한 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전북자치도와 순창군이 공동 후원한다.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선수는 지난 3월 순창군에서 개최됐던 제45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3개 대회의 성적 예상을 통해 상위권 성적으로 선발된 주니어 선수 100여 명이다.

경기는 복식과 단식 부분으로 나누어서 치러지며, 본선과 최종 선발전을 거쳐 남녀 각각 6명씩 총 12명의 정예의 선수들이 선발된다. 선발된 선수들은 '2024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 대회' 등 주요 주니어 국제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회는 주니어 선수가 실업 선수로의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엘리트 소프트테니스 선수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은 임실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27일 봉황인재학당에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남원시립도서관,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운영

내달 15~22일 진행

남원시립도서관은 6월 15일~22일까지 남원시에 거주하는 2017년~2024년생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번 후속 프로그램은 2024년에 선정된 북스타트 그림책이 주제 도서로, 아기와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만한 활동으로 기획했다. 이번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은 △2023년~2024년생 아기와 양육

자는 그림책 '와! 무지개다!' 울동(6월 15일), △2021년~2022년생 유아와 양육자 대상자는 그림책 '그래! 이 닥지 말자' 관련 울동(6월 18일), △2019년~2020년생 유아와 양육자는 그림책 '노란 길을 지켜 줘' 관련 점자책 체험과 수학 울동(6월 19일)을 진행한다. 또한 △2018년생 유아는 그림책 '내 걱정은 하지 마!' 관련 건강 체조와 게임(6월 21일), △2017년생 어린이는 그림책 '지구 레스토랑' 관련 미술

활동(6월 22일)을 진행할 계획이며, 참여 신청은 남원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namwon.go.kr/lib)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063-620-8978)하면 된다.

시 도서관운영팀 임지남 팀장은 "그림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생애 초기를 지내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우체국-임실경찰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 MOU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는 28일 임실우체국(국장 박명숙)과 임실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체국과 경찰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치안 문제를 진단하고 능동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가장 안전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집배원 외근 활동 중 범죄 현장 등 목격 시 112신고 체계 구축 △치안 불안 요소 발견 시 경찰서 통보 △집배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우체국 택배 차량 등 활용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2024 활력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 선정

총사업비 31억원 확보

남원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 활력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20억원, 도비 2억5,800만원, 시비 8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1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 내 주요 거리, 공원, 공공공간을 활용, 아름답고 근로 친화적인 거리 및 청년 친화 생활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03년 조성된 노안 제1농공단지를 공모 신청해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남원시는 노후화된 노안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실수요자인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들은 농공단지 내 공용 회의 공간을 비롯한 쉼터, 체육시설 공간 등이 부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 요구해 시에서는 이를 공모사업 내용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근로 친화형 쉼터 및 체육공간 △보행친화형 특색있는 가로 조성 △미세먼지 측정 및 범죄 안전 스마트 시설 △공장 노후 간판 개선 △상생문화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낮에 근로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밤에 지역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일상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선정

남원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4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은 관광 트렌드, 방문자 특성 데이터, 관심 업종 소비 데이터 등 관광 여건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절정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6월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컨설팅 투어, 의견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12월 성과 공유회를 통하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컨설팅 대상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로 선정된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으로, 관광투원 일대 반경 2km 일원을 전통문화 체험관광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RIS 공모 선정 쾌거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하 재단)과 전주대학교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협력재단에서 주최한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정책 자율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재단은 '순창 발효문화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현안인 전통장류산업 및 순창고추장민속마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로써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전주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2023년 지역혁신사업(RIS) 정책 자율과제'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관광지 이미지 전환 및 MZ세대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작은 축제 운영 △지역주민 및 관광 전문가가 참여하는 순창관광활성화 포럼 개최 △순창관광 활성화 방안 발굴 및 관광수익모델 확충을 위한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전통장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식관광프로그램인 떡볶이 페스타 개최 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